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은퇴식 및 근속자 포상식

12월 31일, 저녁찬양예배 시간에

교회는 한 직임을 맡아 오랫동안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을 매년 포상하여 오고 있는데 올해도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12월 29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행하기로 했다.

장기 근속자 선정은 직분을 받고 동일 직분에서 근속한 사람으로 직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직분에서 장기근속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교회학교 교사가 9년 근속한 후 서리집사 임명을 받는 경우 교회학교 근속년수는 해당이 안되고 서리집사 근속년수로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근속일수는 취임 및 임명일로부터 포상 시행일까지로 하며 군복무 경우 제대와 동시 봉사직에 복귀하였을 때는 근속으로 하되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금년말로 70세가 되는 시무장로, 시무권사들의 은퇴식도 이날 함께 실시한다.

장기 근속자 명단

· 30년, 서리집사 / 홍정해

· 20년, 여전도사 / 정연희

· 20년, 권사 / 김영희 전순자

· 20년, 서리집사 / 김성덕 박병은

· 15년, 여전도사 / 정복인 현정남

· 15년, 권사 /

김귀녀 김옥선 김용순 김정덕 김정화 김후전 남궁규원 라봉도 민은혜 서양순 송명희 안옥실 이상덕 이춘일 장영옥 정송화 조동숙 필기복 한순원

· 15년, 서리집사 /

김은수 김인규 노기철 변영배 석영식 송수일 윤주현 이구상 이성섭 이종성 이효상 임용광 임창수 정재복 한종택 김경자 김경희 김경희 김덕실 김성열 김영란 김영복 안금자 안정자 유효순 이종영 이천애 정영배 정옥남 정은숙 최명초 홍경선

· 10년, 여전도사 / 최명자

· 10년, 권사 /

강순남 권영해 김금순 김길득 김선희 김연균 김용섭 김춘지 김춘희 나영의 나종순 남은주 박명엽 박민래 박윤석 사임선 서옥재 신영순 양숙자 우순성 유금열 윤정덕 이병숙 이순희 이윤영 이인숙 전부덕 정순자 정주한 조미경 조복덕

· 10년, 서리집사 /

공석생 김광수 김낙홍 김봉중 김성호 김연근 김원봉 김정호 김종은 김중천 김태전 김홍기 동창환 민명옥 박길홍 박노봉 백은홍 변영환 안성식 양승길 이봉주 이상태 이승구 이영희 이종갑

이종원 이태균 이흥기 임순배 임춘식 장경수 장태석 정상수 정영현 정운환 정위식 강성자 강영미 공정자 김복자 김숙자 김순은 김순임 김신희 김연태 김영순 김영자 김예순 김윤희 김인한 김정화 김차금 김학희 마봉희 문봉래 문영남 박신자 박영자 백현제 석귀수 선순례 성명선 손복희 신숙제 양은숙 여정자 오순자 오윤숙 윤명자 윤병순 윤병연 윤홍자 이강자 이경자 이계옥 이규숙 이길자 이남숙 이상옥 이선록 이순이 이승순 이연순 이연화 이옥숙 이옥자 이정분 이정숙 이종희 이해영 이효순 이훈숙 장순자 전금금 전복실 전순희 전영희 전준옥 정경옥 조순림 조해경 채홍연 최금숙 최금실 최수경 함순려 함윤자

· 직원 / 김형철

은퇴자명단

· 장로 / 이태규 김영개 강 협

· 여전도사 / 최순복 정복인

· 안수집사 / 서동석

· 권사 /

공향조 김갑순 김귀녀 김근실 김영옥 김영희 김정례 김정은 서영자 송희연 신갑범 신군자 양정옥 윤정덕 이란숙 이명자 이옥분 이정자 조항숙 지숙원 최영호 현숙희 황순정

'97 신년부흥사경회

1월 6일~10일, 기도원에서
새벽, 낮, 저녁 하루에 세 차례



충현기도원에서는 1997년을 맞이하여 '97 신년부흥사경회를 개최한다. 이규왕 목사(부산 신평로교회 담임목사, 사진)를 강사로 열리는 이 부흥사경회는

97년 1월 6일(월) 밤부터 10일(금) 새벽까지 충현기도원에서 모이게 된다.

'미래를 대비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새벽, 낮, 저녁 하루에 세 차례 모여 집회를 하게 된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시작한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삶을 위해 여러모로 유익할 것이다.

교통편은 충현교회당에서 오전 9-10시, 오후 6-7시와 성남 모란시장 입구에서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7시 10분, 분당 이매촌 한신 아파트 전하리 교회 앞에서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7시 20분에 버스가 출발한다.

기쁨으로 성탄축하예배

12월 20일(금) 메시아 찬양, 12월 24일(화) 명동 찬양전도

12월 25일 오전 11시 예배, 기독교 TV에서 생중계

대통령 김영삼 장로 가족도 참석

성탄절을 맞으며 교회는 12월 25일 새벽 5시 새벽기도회와 오전 9시, 11시 성탄축하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이미 지난 12월 20일(금) 저녁에 실시된 연합찬양대의 성탄축하 메시아 찬양을 통해 온 교인이 함께하며 우리를 구원키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드렸다. 이 시간에는 본당 1, 2층을 가득 메운 교인들과 600여 연합찬양대가 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진정한 찬양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하고자 하는 기대감을 안고 찾아 나온 교인들과 성심으로 준비한 찬양대원과 오케스트라, 지휘자, 반주자가 한데 어우러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탄생,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성탄절 이브에는 청년1부 전 회원이 참여하여 명동찬양전도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실시하며 찬양과 개인전도 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도 했다.

성탄절 축하예배는 온 가족들이 함께 참석하여 예배드리기 위해 어린이까지 함께 가족단위로 참석한 교우들이 많았다. 오전 11시 예배는 예배 시작 이미 15분 전에 본당 1층은 가득 차서 2, 3층으로 안내해야 했다.

특히 11시 예배는 기독교 TV에서 생중계를 실시하여 방영되었다. 또한 이 시간에는 대통령 김영삼 장로의 전 가족이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다. 김 장로는 예배가 마쳐진 후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준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대통령직 수행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한 후 특별한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성탄절 저녁 수요일예배는 교회학교 학생들의 성탄축하 발표회로 모여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고 온전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내년부터
초등부 3개 부서로 통합

초등 1, 2는 유년부로, 초등 3, 4부는 초등부로, 초등 5, 6부는 소년부로

초등부 예배 시간을 오전 8시 50분과 오전 10시 50분으로

새가족부는 교육위원회 산하로

내년부터 교육부서의 개편이 실시된다. 현재 초등부를 초등학교 편제에 맞추어 1, 2, 3, 4, 5, 6부로 나누어 있는 것을 초등 1, 2부를 묶어 유년부로, 초등 3, 4부를 묶어 초등부로, 초등 5, 6부를 묶어 소년부로 편제를 바꾸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초등 부서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져 온 성인 주일 예배시간대에 맞춘 초등부 예배시간 문제가 구체화 된 것이다. 우리 교회는 교회 근처에 사는 교인보다 차량을 이용해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은 편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 부모님의 예배 시간대에 맞추어 오기 때문에 2부 예배 시간 외에는 초등학생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따라서 초등부 예배시간을 2, 3부예배

시간대에 맞춘 오전 8시 50분과 10시 50분에 드리기로 했다. 따라서 교회학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및 초등학생 대상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모두 2부제 예배 시간대로 모이게 됐다.

그동안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부모님들은 이제 3부 예배시간대의 교회학교로 학생들을 출석시키면 된다.

유년부는 교육관 314호, 초등부는 교육관 307호, 소년부는 교육관 407호에서 모이게 된다.

한편 그동안 교구위원회 산하에 있던 새가족부가 교육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어 교육적 측면의 강화가 예상되고 있다.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성도의 회개 기도(2)

(시편 38:11-22)

2. 기도하는 다윗의 형편이 어떠합니까(38:11-22)

(1) 원수가 위협을 합니다

다윗왕이 죄값으로 인하여 버림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 뿐 아니라 친구와 친척들에게도 버림을 당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친구가 먼저 찾아 다니고 벼슬이 높을 때는 아첨하는 친구와 친척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고 벼슬이 떨어지면 친구는 자기 갈 데로 가고 친척은 원수와 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다윗왕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집안에는 어려운 일이 거듭 일어나고 몸에 병이 드니 친구들은 멀리 서서 조롱을 하고 친척들은 원수를 찾아가서 다윗왕의 비밀을 알려주며 원수와 한 편이 됩니다.

다윗왕의 원수들은 그 친척들이 한 편이 되어 주니 의기양양 합니다. 그들은 다윗이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울무와 함정을 파놓고 입으로는 저주를 하며 갖은 방법으로 꾀를 베풀습니다.

(2)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왕은 친구와 친척들에게 거듭 어려움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사면초가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귀먹은 것처럼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변명도 하지 않고 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죄인이므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죄인으로서 변명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병어리 노릇, 귀머거리 노릇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열었습니다. 죄인이 사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변명을 하면 말 싸움, 주먹 싸움, 칼 싸움이 되어 싸움만 커질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사정을 아십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죄를 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인을 죽인 살인죄를 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참 일꾼은 세상의 모든 말을 듣고도 귀머거리 노릇하고 병어리 노릇하면서 변명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일에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무슨 말을 할 때 언제 그랬느냐고 변명하고 싸우다가는 절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유혹하는 말을 들으면 죄악에 빠져서 일을 못하고 협박하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면 그 일이 무너져서 일을 못하고 억울하다고 변명하면 신경질이 나서 일을 못합니다.

남의 말에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고

유혹하는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 인격자요 참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마음은 태산처럼 튼튼히 서야 됩니다. 유혹하는 말에 끌려가고 타협하는 말에 흔들리면 그 인격은 무너지고 그 가정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해꾼이 있고 일을 못하면 안됩니다. 방해꾼이 있으면 이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가며 일해야 됩니다. 또 방해꾼이 그 길을 아주 막아 놓으면 3년, 5년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일을 해야 됩니다.

신자는 마음을 태산처럼 튼튼히 서게 하고 유혹하는 말과 꾀박과 협박도 견디어야 됩니다. 신자가 행하는 선한 일은 누가 방해를 해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윗왕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 당한 일이 인간적으로 너무 기가 막혔지만 낙심이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발악하지도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3) 주를 바라봅니다

편안할 때에 신세를 열 번 지던 사람도 어려워지면 까닭없이 원수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성공밖에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꾀롭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란 의인의 손에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저들의 손에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도 악인의 손에 죽더라 하는 말이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도 안되고 죄인들이 회개할 마음을 품었다가도 회개하는 용기가 끊어지겠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죄를 범한 사람의 기도는 안들어 주신다고 하면서 의인을 죽이는 데 용기를 품게 되겠사오니 비록 내가 천 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에 복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의논할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를 찾아 의논할 수 있는 어린이가 행복합니다. 남편을 찾아 의논할 수 있는 아내가 복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돌을 향하여, 나무를 향하여, 심지어는 돼지 대가리를 삶아 놓고 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신자에게는 의논할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의 힘도 있고 권세의 힘도 있고 지혜의 힘도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하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마지막에 더 좋아진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도 회개를 바로 하여 점점 더 좋아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때리기는 때리시되 아주 버리지는 말아 주세요. 아주 멀리하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돌보아 주세요. 속히 구원해 주세요. 인생의 일생은 너무 짧습니다. 빨리 건져 주세요.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는 영육이 설 데가 없사오니 건져 주옵소서."

신자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부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보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불쌍히 여겨 줄 것을 호소합니다. 제자들은 이방 여자가 따라오며 떠든다고 꾸중을 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기회를 놓치면 큰일이 나겠기에 예수님을 따라잡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누가 이리 떠드느냐" 머물러 서십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불러 오너라" 여인이 왔습니다.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고쳐주세요" "아들이 배부르기 전에 빼앗아 가는 사람을 보았느냐" "웁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먹던 부스러기야 못주워 먹겠습니까?" 지혜로운 말입니다.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되리라" 돌아가 보니 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먹던 떡을 아들이 배부르기 전에라도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좋은 떡을 주십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 주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진정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복도 주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면 안됩니다. '너는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와서 의논해라, 너를 눈과 같이 씻어 주마'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600년 동안 범죄한 니느웨가 사흘

동안 금식할 때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는 사람 앞에 병어리 노릇을 해야 회개를 잘합니다. 말로써 자기를 변명하고 잘못을 남에게 핑계하는 사람, 말로 싸움하기를 잘하는 사람은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변명도 없이 비난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왜 합니까? 범죄함으로 지옥에 가게 됐으니 회개를 한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보다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식이 범죄함으로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이 아프십니다.

회개하는 자는 원수에게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고서 회개해야 됩니다. 몸이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남에게 조롱을 받아도 진정한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믿고 회개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에 살려 주시면 바로 살겠습니다.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바로 함으로써 은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빨리 회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마지막에 더 좋아진 것처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도 회개를 바로 하여 점점 더 좋아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1996년 결산과 새해 계획

새해의 결심과 문제의식

김찬곤

(목사, 교구위원회, 3교구 지도)



올 해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유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공주병과 만독이 시리즈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공주병은 세상 삶이 복잡하고 힘들다 보니 알아 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서 스스로 도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만독이 시리즈는 아이들이 귀신과 친구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흔들며 버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회의 현상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가 최근 들어 가장 힘든 해였습니다. 외채가 눈덩이같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노동 기피 현상으로 생산성이 저조될 것이고 과소비 풍조의 환연과 저축부진, 급증하는 범죄, 도덕성 상실, 북한과의 불안정한 관계 그리고 대선의 과열분위기에 대한 우려 등등의 나라 안팎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996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말에는 항상 엄숙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루의 시간 중에도 마지막이 있고 한달 중에도, 한해에도 그리고 인생의 시간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끝입

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해가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인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새해가 새롭게 다가와도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자각하지 않는 것은 의미없는 날이며 감나무 밑에서 감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새해가 새롭게 다가와도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자각하지 않는 곳에는 의미없는, 허공을 맴도는 새해 인사만 급급할 뿐인 것입니다. 새해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전환에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전환이요 탕자가 '아에 스스로 일어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는 결단이요 교회의 필박자 사울이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

은 후에 순교자 바울로 변하는 생의 전폭적인 변화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변화도 없는 새해는 새 단계의 인생이 아니라 어제의 연장이

요, 다람쥐의 쳇바퀴 같은 삶인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선 나 자신부터 변화되는 해이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실패했는지라도 내년부터는 충실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재 이대로는 안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전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였던 순교자의 신앙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전통이 고상하고 귀하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 그 전통만 가지고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옷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사고구조를 변혁해야 합니다. 사회와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팬티엄 기종을 넘어서 686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286 컴퓨터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시대를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시기 동안에 세계와 교회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일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물을 보는 새로운 방법이라는 뜻의 패러다임의 변화(paradigm shift)라고 부릅니다. 위기는 곧 위험과 함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는 안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문제를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걸음인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어두운 전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시 33:12).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마지막 소망을 두는 그 백성이 참으로 복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펴지 않으시면 강력한 군대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에 말(馬)은 헛 것임이여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시 33:16-17).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여호와와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함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시 33:18-19). 우리의 영혼과 생명 전체를 돌보시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 사랑 속에 희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국자

(권사, 유아부 교사, 2-1교구)



‘집’ 사님! 집사님! 우리 아들이 오늘 세례 받았어요. 온 동네 방방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왜 나한테 저 집사님이 묻지 않을까 혼자서 흥분하며 언제 길에 다니며 자랑하고 싶고 하늘을 보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랑하고 권사님께도 자랑을 했습니다. 빨리 저녁 때가 되었으면 하고 기다리는데 그날은 오후 시간이 좀처럼 가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96년 10월 11일 저녁 6시 40분 교회에 도착. 갈릴리홀에 문을 여니까 유아세례 받는 아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학식, 세례, 입교 등 갈릴리홀이 꽉 차 있었습니다. 몇번째 오지만 이번엔 특별히 많았습니다.

몇년 전 자부가 세례를 받고, 둘째아들이 그후에 받고, 또 큰아들께 요년에 받는 것입니다. 93년 봄 《계간충현》에 “기다림”이란 글을 썼던 것이 있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 장금보다 귀한 믿

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소원하며 밤낮 기도했다니 우리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다 자란 아들딸에게 영생의 물을 먹이려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요. 주일이면 여러 곳에서 유혹도 많고 놀러 가지도 좋지요.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를 옆으로 설레설레 저으면서 “나는 예수 믿기 싫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놀러 가야지요. 바람도 쐬고 놀러도 가고 나는 예수가 싫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는 이제 할 말이 없다” 하고는 밤을 잤다가 얼마나 얼마나 울었는지요. 예수님 사건이 벽에 걸렸는데 나를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지요. 그때 활짝 눈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큰아들이 싫대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눈물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어 시간 흐느끼면서 예수님 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방에서 잠자던 딸이 놀라서 나와

“엄마 왜 울어 어디 아파? 병원에 가야지, 많이 아파?” 그러면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그게 아냐야 큰오빠가 교회에 안간대 예수 믿기 싫대” “그게 그렇게 서러워?” “나는 오늘 저녁에라도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아들 전도도 못했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교회 가자고 하겠니?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나는 천국에, 네 오빠는 지옥에 갈텐데 말이다.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흐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울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면 그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일이면 한 주일도 안빠지고 자부며 돌이 손을 꼭 쥐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는 내가 있는 유아부 교사실에 와서 눈도장을 찍고 가지요. 얼마나 흐뭇하고 예뻐요. 자부의 노력도 컸지요. 그래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한번은 권유에 못이겨서 세례문답을 갔다가 그냥 되돌아 오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서운하던지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그래서 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할 것을 달래놓고 이것저것 달라하면 주겠니?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배 할 일을 다해놓고 잔구해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손들에게 믿음을 물려 주

는 것 소원합니다. 자자손손이 믿음이 이어지는 가정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큰아들의 마음을 녹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집 가족 모두 세례교인입니다. 나의 남편에게 집사 직분 주시고 또 부족한 저까지 귀한 직분 주시니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이제 온가정이 함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정말로 그 맛이 어떤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에 얼마나 큰지 한번쯤은 생각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려다.

요즘은 주일 아침마다 먼저 집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택하신 우리 식구들 오늘 주님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늘문도 활짝 열어 주시고 아들의 마음에 문도 활짝 열어 성령충만 받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옵소서.”

앞으로 저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 생활 열심히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토막소식

▶ 군전도회에서는 성도의 가정 중에서 군복무중인 160여명에게 성탄선물을 전달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복무자를 돌아보는 일을 계속할 계획이며 따라서 성도의 가정에서 군입대자를 군전도회에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 대학부에서는 97년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춘천소년원 성경학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바라고 있다. 한편 대학부 찬양팀에서는 보다 은혜로운 집회를 위하여 악기파트, 싱어파트, 음향파트를 모집하여 왔는데 오늘 오후 7시 나사렛홀에서 오디션을 실시한다.

▶ 사랑부에서는 차량 담당 교사를 모집한다. 사랑부에서는 현재 지체장애

인인 학생들을 차량으로 집회 전에 집에서 교회로 데려 오고, 집회 후에는 교회에서 집으로 데려다 주고 있는데 대형 1종 또는 보통 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성도 가운데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는 사랑부 교사실(교육관 105호)로 신청하시기를 바라고 있다. 봉사 시간은 주일 오전 8시~10시 30분이나 오후 12시 30분~3시이다.

특별제직회

오늘(12월 29일) 4부예배 후 본당에서 특별제직회가 소집된다. 오늘 제직회에서는 96년도 결산 보고 및 97년도 예산 심의가 있을 예정인데 교회의 모든 제직들은 모두 참석해야 한다.

공동의회 소집

교회는 97년 1월 5일(다음 주일) 4부예배 후에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갖는다. 안건은 96년도 결산 보고 및 97년도 예산 심의에 관한 건이다.

충현복지관 직원모집

충현복지관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 | 아래 | 모집부문 | 인원 | 자격 |
|----|--------|----------------------------------|----------------------|
| | 특수교사 | 0명 |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예정자) |
| | 체육교사 | 0명 | 특수체육 전공자
(예정자) |
| | 생활보조교사 | 0명 | 장애인
시설 종사자 우대 |
| | 전형방법 | | |
| | 1차 | 서류전형(자필이력서, 자필 자기소개서, 전학년 성적증명서) | |
| | 2차 | 면접(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 |
| | 접수마감 | 1997년 1월 7일(화) | |
| | 문의 | 564-4885, 562-0548 | |

어바나 '96 선교대회 참석

'96 어바나 선교대회에 우리 교회의 청년, 대학생 26명이 참석한다. 어바나선교대회는 전세계에서 주로 젊은이들이 모여 선교에 관한 토의, 보고, 선교전략 수립을 논의하는 대회로 세계적 선교대회가운데 하나이다. 96년 12월 26일~97년 1월 9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에 선교위원회 지도 이승림 목사가 인솔하여 가게 됐다.

또한 대학부 교사와 학생 12명은 운동연합회를 통해 97년 1월 7일~18일까지 필리핀에서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한다.

청년1부는 지난해 여름 일본 단기선교 사업의 연결로 구정 기간을 이용한 일본 선교를 계획하고 있다.

◀ 한해를 보내며 ▶

96년의 슬픔을 딛고

이순옥
(집사, 4교구)

어느날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없어서 늘 불편한 것만을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즐거워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 버렸습니다. 아니, 누가 강제로 빼앗아간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라고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인격이 있으신 분이 이젠 너무하신 것입니다. 남편도 일찍 데려가시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까, 아들 자랑도 조심했는데... "이순옥 집사야 그 아들은 미안하지만 너보다 내가 더 필요하단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시나요?

"암 알지, 알고 말고" "죄도 없는 내 아들이 갖은 모욕과 매를 맞으며 십자가에 달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했던 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보았니?" 아, 나보다 더 아프셨겠군요 하고 생각했지만 당신은 삼일 후에 만나실 줄 알고 계셨잖아요, 했습니다. 그분은 또 대답하셨습니다. "너도 잠시 후에 만날 수 있단다." 그분의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내가 따질 권한이나 있어야지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어느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에게 상처를 덜 주고 제 아들을 데

려갈 수 있을까 생각하시고 데려가셨음을 알았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잠시 이별 연습을 시키시고 시신 매장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어 나에게 아들의 추한 모습도, 복잡한 장례식도 안하게 하시고 국가에서 나의 노후를 책임지게 하시고 환하게 웃던 아들을 내 마음 속에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저수 경례를 하던 늙은 모습의 김준모 이병.

군에 있는 오개월 동안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엄마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를 생각해 두셨다가 그렇게 하세요" 하였으니 내가 늘 걱정하던 아들의 믿음의 이 정도면 천국에는 틀림 없이 갔을 거예요.

하나님은 병도 주시고 또 평안이라는 약도 주시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평안해 주셨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뿌듯함도 느꼈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갈 줄 알았다면 더 잘해 줄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아쉬운 마음은 별죄부대 군전도를 위해 채우셨습니다. 좋은 일도 주시겠지요. 성경에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가르침을 받아 오라 하실 때까지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글로 전합니다. 평안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충현상조회에서 알려 드리는 말씀

충현상조회에서는 상(喪)을 당한 가정의 충현동산을 이용할 경우에 알아야 할 사항과 상조문제에 관하여 정리하여 필요한 모든 성도들이 이를 잘 이해하고 상조회의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이 난을 마련하였다.

1. 충현동산 묘소대금

1) 묘1기 매장할 때	1,200,000
10년 관리비	300,000
계	1,500,000
2) 기존묘소에 합장할 때	
가. 10년 관리비 납부한 묘소는	1,200,000
10년 관리비	150,000
계	1,350,000
나. 10년 관리비 미납 묘소는	1,200,000
10년 관리비	450,000
계	1,650,000
다. 제1동산에서 충현동산으로 이장할 때	800,000
10년 관리비	300,000
계	1,100,000

□ 충현동산에 매장되어 있는 묘소에는 제한없이 합장이 허락된다.

2. 매장신고

- 구비서류
① 매장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묘지사용 승락서, ⑤ 비문
- 상가에서는 교역자가 전달한 소기양식에 의거 상기서류를 충현동산 관리소 관리인에게 장례식 당일 하관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충현동산 식당운영

- 당 식당에서 밥, 국, 김치를 준비한다(1인당 3,000원).
- 기타는 상가의 형편에 의해 준비한다.
- 식사를 위한 모든 기물은 식당에 준비되어 있다.

4. 조의금 전달

- 관보는 교역자가 전달한다.
- 조의금 5만원은 교구장이나 지역장이 전달한다.
- 본 교회 성도의 직계로 별세자가 타교회 교인일 경우는 교역자가 조의금을 전달한다.
- 소망부 학생이 별세했을 때는 소망부 부장이 조의금을 전달한다.

5. 상조회 및 충현동산(연락처)

- 상조회 사무실 : 552-7750 (사무국)
- 상조회장 : 김여순 장로(전화 483-7536(야간), 휴대폰 011-742-8200)
- 서 기 : 정정주 장로(전화 552-8200, 교 285(인쇄실))
- 충현동산 : 이범무 집사(전화 0347-64-9617)
- 실무담당 : 오인근 집사(전화 556-2367), 서동석 집사(전화 432-6120)

6. 기타 상조업무나 충현동산 이용문제에 대하여 문의해실 분은 상조회장 앞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